

국민생활 불편 · 기업규제 개선한다

전북도, 내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전북도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30일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건의하면 된다.

3월 19일까지 접수된 과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심사를 거

쳐 우수과제로 선정되며, 10월에 우수과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6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 시상금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참여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www.jonbuk.go.kr)를 통하여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pey43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민참여단을 확대·운영하고 ‘전문가 제안 분야’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생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

한다.

장운희 법무행정과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과 지역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전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366건 규제발굴, 17건 중앙부처 중점과제 선정, 주요 개선사례로 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 기준 완화,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항력 발생시기변경,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의 조항 삭제 등 13건이 해결됐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업무성과가 우수한 7개 부서에 대하여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전북도, ‘이달의 으뜸 도정상’ 시상

새만금수질개선과 · 도로교통과 최우수 부서 등 7개 부서 선정

전북도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7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각종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한 부서를 선정, 시상하는 '으뜸 도정상' '하이스피의 날'을 통해 수상하던 '시상식'이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별도로 마련해 시상했다.

총 23개 부서가 접수되어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최우수 부서에는 새만금수질개선과, 도로교통과가, 우수부서에는 공항화천과, 해양수산정책과, 농식품인력개발원, 물환경관리과, 도립국악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달의 으뜸도정상' 부서에는 격려금(30~50만원)과 최우수 부서 가점(0.05점)·개인 가점(0.3점)이 부여된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전국 최대 축사 밀집지역인 왕궁 정작농원(한센인 정착촌) 미처리된 오폐수 및 가축분뇨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악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설득, 국회 활동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국비 전액(125억원)을 확보한 공로가 인정됐다.

도로교통과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도민들의 경제적 편익이 증진되었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의 신규 운행으로 도민들의 공학버스 이용 교통 편의를 도모했다.

공항화천과는 새만금지역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타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공학 기본계획 수립비 등 2020년 예산 4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해양수산정책과는

2020년 어촌뉴딜 300공도선정 9개소(936억원)가 선정되어 어촌·어항 통합재생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2019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물환경관리과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도 의견을 전격 반영시켜 '금강수계지역에 만경·동진강 수계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도립국악원은 매년 3,000여명의 맞춤형 국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악 대중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으뜸 도정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 위해 도청 공무원 헌혈 동참

전북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헌혈은 지난 12일 송하진 도지사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원들이 숭선수범해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해 마련했으며,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의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지난 18일 오전 12시 기준)으로 관심단계이며, 적정보유량인 5일분 이상 확보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발병된 이후 혈액수급 현황을 보면, 도내

헌혈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2건(개인 345, 단체 777) 줄었다. 설 연휴와 학교 방학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동절기인데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단체헌혈 취소, 외출 기피 등에 따른 헌혈 참여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이번 헌혈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기원했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형국)도 헌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헌혈 참여직원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헌혈 시에도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19에 대비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헌혈버스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감염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헌혈이 실시됐다.

도 관계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헌혈문화가 민간 기업과 도민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이 동참하는 ‘2020년 동절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과수업무 · 화상병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2월 초 경기도에서 유행해 들어 첫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련교육을 실시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했고, 2019년에는 경기도 등 4개 도의 10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개화전 방제시에는 배는 꽃눈이 싹트기 전,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등록된 예방 약제를 과수원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해 수시로 소독해야 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

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기른 것을 구입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는 겨울철에 배나무 잎이 검게 마른 채로 붙어있는데 전정등 작업 중에 의심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예방을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농가에 개화전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왕열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군산시 · 우리영농조합, 전국 16개소 중 처음 시작...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지원

전북도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는 9만 6천원만 납부하면 12개

월 동안 최대 24회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과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유통·공급 업체 사업추진 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급업체인 우리영농조합법인(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로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경험이 많은 우수업체로서, 총 8개의 상품을 구성해 공급중에 있다.

군산시와 우리영농조합은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16개소의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장 먼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작(1월 23일)했으며, 19일 현재 사업신청 210명 중 상품주문 33명에게 꾸러미를 공급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 석 대 학 교 평생교육원

환 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즐겁게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V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가계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가계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